

##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

- 2023 중장년인턴십(기업연계형) 참여기업 모집 -

### Q) 전년도 인턴십 사업과 올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?

- A) ① 인턴십 참여 연령대 확대(만 45세~67세 서울시민 → 만 40세~64세 서울시민)  
② 근무형태 파트타임으로 일원화(풀타임 인턴십은 운영하지 않음)  
③ 활동처가 유사한 인턴십 사업 통합 운영(사회적경제인턴십, 중소기업/디지털/그린뉴딜 전문인력 → 중장년인턴십(기업연계형))  
④ 활동기간 3개월로 일원화

### 지원자격

### Q)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나요?

- A)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. 다만,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참여기업(활동처)의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 후 재단과 협의를 통해 참여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### Q) 현재 중장년인턴십(기업연계형)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?

- A) 가능합니다.

### Q) 직무기술서에 고용계획은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?

- A) 반드시 적어주셔야 하며, 아니오 응답 시 기타에 해당사유를 기술해주셔야 합니다.  
인턴십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연계 의향이 있는 기업을 우선 선발합니다.  
다만 인턴 활동 종료 후 고용계획에 따라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## 신청방법

### Q)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?

A) 네. 50플러스포털(50plus.or.kr)에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로그인 상태여야만 모집공고 페이지의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.

### Q) 신청서 작성 도중 중간저장이 가능한가요?

A) 네. 가능합니다. 작성도중 우측 중간저장 버튼 및 하단 임시저장 버튼을 통해 신청서를 중간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출 마감일 전까지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하셔야 합니다.

## 인턴십 활동

### Q) 인턴십 참여자는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나요?

A) 풀타임(일 8시간)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(월 57시간) 인턴십입니다.  
따라서, 월 57시간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정은 참여기업(활동처)와 참여자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.

### Q) 인턴 인건비 지금도 참여기업이 직접 해야 하나요?

A) 참여자(중장년 인턴)의 활동비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직접 지급합니다.  
참여기업(활동처)에서는 참여자 일 경험 제공, 복무 관리, 근무 환경 조성 등을 담당하며 매월 50+포털을 통해 참여자의 활동일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해주셔야 활동비 지급이 가능합니다.

### Q) 인턴 활동 종료 후 반드시 채용해야 하나요?

A) 인턴 활동 종료 이후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발하며, 인턴 활동 종료 후 채용 여부는 참여기업(활동처)과 참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
**Q) 참여기업으로 선발되면 신청 인원만큼 중장년 인턴이 배치되나요?**

A) 배치 인원은 활동처 선발과정 및 참여자 선발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.  
따라서 기업의 신청 인원과 실제 배치 인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.

**Q) 중장년 인턴의 활동 기간과 월 활동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**

A) 중장년 인턴의 활동 기간은 3개월(2023.08.09(수) ~ 10.31.(화))입니다.  
월 최대 57시간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.

**Q) 기업 특성 상 참여자가 야간이나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가능한가요?**

A) 야간이나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참여기업의 활동 환경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단과의 협의 및 활동처와 참여자간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. 이와 같은 경우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활동이 시행될 수 있음을 직무기술서에도 명시해 주셔야 하며, 참여자는 ‘근로자’가 아니므로 해당 시간 활동비의 1.5배 지급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.